

KIA, 김도현만 나오면 경기력 최악... ‘비운의 투수’

悲運

평균자책 1점대... 성적 ‘0승 1패’
4번 등판에 퀄리티스타트 세차례
불펜투수 역전 허용·타격도 침묵
“승패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 해”



‘평균자책 1점대를 지키며 KBO리그에서 자책점이 다섯 번째로 낮은 투수’, ‘개막 이후

네 경기에 선발 등판해 세 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한 투수’, ‘0승 1패 투수’ 공존할 수 없는 말들이 모두 KIA타이거즈 김도현을 가리키고 있다. 시즌 초반부터 불펜이 무너지며 팀의 패배와 함께했던 김도현은 16일도 퀄리티 스타트를 선보였지만 27타수 1안타의 무기력한 타선으로 패전 투수가 되는 등 비운(悲運)의 그림자가 겹치지 않고 있다.

김도현의 성적표는 시즌 초부터 어긋나고 있다. 첫 출전이었던 지난달 27일 김도현은 6이닝 동안 26명의 타자를 상대해 2실점(비자책)의 호투를 선보였으나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경기 끝에 9회초마운드에 올라간 정해영이 1이닝 3실점(3자

책)을 하면서 경기가 기울었다. 두 번째 경기였던 지난 2일에도 그는 6이닝 2실점(2자책) 호투를 했으나 또 불펜이 무너지며 팀의 패배를 지켜봐야 했다.

물론 김도현이 선발 등판한 날 팀이 승리한 적도 있다. 롯데를 상대로 5.1이닝 2실점(1자책)의 호투를 펼친 지난 8일의 경우 팀이 승리하긴 했지만, 1이닝 1실점(1자책)을 기록한 조상우가 승리 투수가 됐다.

특히 6이닝 2실점(2자책)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던 16일에는 KIA 타자들이 27타수 1안타라는 처참한 기록으로 영봉패를 당하며 패전 투수가 되기도 했다.

자신이 선발 등판만 하면 팀 어딘가에 ‘구멍’이 생기고 있는데도 그는 묵묵히 제 몫을 해내고 있다. 앞서 한화 시절 최고 구속이 시속 140km 초반에 평균 구속은 130km대로 제구도 안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날이 갈수록 공이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속이 140km 후반으로 크게 오른 점으로 이를 기반으로 타자들의 타 이밍을 빼앗고 히팅 포인트를 당기는 타

자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범호 감독의 눈에 들어 올해 처음으로 풀타임 5선발로 시즌을 출발한 김도현의 평균자책은 1.93으로 지난 15일 무실점 호투로 KIA의 타자들에게 극찬을 받은 고영표(2.28) 보다도 더 좋은 성적으로 팀의 1선발 제임스 네일과 함께 KBO 정상급 투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다만 평균자책 1위부터 14위까지의 투수들이 모두 4~5경기에 선발 등판해 최소 1승부터 많게는 4승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반면 김도현만 여전히 승리 기록이 없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심지어 LG 손주영의 경우 평균자책이 김도현에 비해 2.3배도 넘는 4.30(22위) 이지만 4번의 경기에서 3승을 기록하고 있다.

김도현은 “경기를 하다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투수가 못 던지는 날은 야수들이 도움을 줄 거고 투수들이 잘하는 날에는 야수들이 못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는 하나의 팀이기 때문에 승·패와 관련해서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KIA타이거즈 김도현이 1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KT와의 홈 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서울 저격수’ 광주FC, 5연승 노린다

19일 서울월드컵서 FC서울전
승점 격차 적어 승리시 선두권
지난해 3번 만나 모두 승리
ACLE 앞두고 분위기 이어가야

광주FC가 FC서울을 상대로 유독 강했던 흐름을 이어가려고 한다.

광주는 오는 19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9라운드 서울과의 원정 경기를 갖는다.

현재 광주는 리그 9경기에서 3승·4무·2패(승점 13)로 4위에 자리 잡고 있다. 앞서 있는 1위 대전하나시티즌(승점 17), 2위 김천상무(승점 14), 3위 울산HD(승점 14)와의 격차가 크지 않다.

이번 9라운드 일정을 승리로 장식한다면 충분히 선두권 등극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경기가 갖는 의미는 광주에게 여느 때보다 특별하다. 광주는 서울과의 경기를 치른 후 오는 26일 알 힐랄과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행 비행기에 오른다. 이후 5월 2일 울산과의 맞대결 전까지 리그 경기가 없다.

이정효 감독과 선수단은 반드시 서울을 잡고 좋은 흐름으로 결전지 제다로 향하고자 결의를 다지고 있다. 다행히 최근 광주에게 서울과의 경기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리그에서 3번 만나 모두 승리(1라운드 2-0, 16라운드 2-1, 33라운드 3-1)를 거뒀다. 2023년 9월 17일 30라운드 경기에서 1-0으로 이긴 것까지 더할 시 최근 4경기에서 4연승을 쟁겼다. 이는 광주가 서울과의 경기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이유다.

선수단 내 분위기도 최상이다. 주중 경



광주FC가 오는 19일 FC서울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9라운드 원정 경기를 갖는다. 사진은 광주FC 가브리엘선수가 지난 16일 K3리그 소속 경주 한수원과의 경기에서 득점 후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모습.

광주FC 제공

주한수원과의 코리아컵 3라운드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그간 다소 출전 시간이 부족했던 노희동, 진시우, 권성운, 하승운 등이 선발로 출전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교체로 출전한 황재환, 홍용준, 안혁주 등도 언제든지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자원임을 입증했다. 이는 이정효 감독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선수단 내 긍정적인 경쟁 구도가 조성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또 고민이 많았던 공격진에선 선발 복귀전을 치른 가브리엘이 1골 1도움, 박인혁이 광주 소속 데뷔골에 성공하며 활활 날았다. 리그에서 3골을 넣고 있는 아사니, 헤이스 공격 듀오에 가브리엘, 박인혁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한 시점에서 광주

를 상대해야 하는 구단은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서울과의 경기는 중원 싸움에서 향방이 갈릴 확률이 높다. 광주는 팀 내 핵심 미드필더 박태준, 이강현이 경주한수원과의 경기에서 체력을 안배했다. 올 시즌 휴식을 취한 박태준, 이강현 조합은 리그 내 어떤 중원과 견주도 부족함이 없다. 반면 서울은 기성용, 정승원이 부상으로 이탈하며 변수를 맞이했다. 광주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서울의 중원 조합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대비하고 있다.

광주는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서울 킬러’ 면모를 재입증하고 승점 3점을 쟁겨 기본 종계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난단 계획이다.

민현기 기자

광주·전남 학생선수, 춘계전국육상경기대회 선전

금 6·은 7·동 3개 등 총 16개 수확
강요한, 멀리뛰기·세단뛰기 2관왕
조수빈, 400mH·1600m혼성계주 金

광주 초·중·고 학생선수들이 제54회 춘계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선전을 펼쳤다.

광주 초·중·고 육상선수들은 지난 12~16일 경북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6개와 은메달 7개, 동메달 3개 등 총 16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광주체고 조수빈(2년)은 여고부 400m 허들에서 1분06초88 기록으로 금빛 질주를 펼쳤다. 조수빈은 또 황원우(1년)·이혜인(3년)·장근오(3년)와 함께 고등부 1600m 혼성계주에 출전해 3분39초21로 금메달을 추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광주체중 강요한(3년)도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요한은 남중부 멀리뛰기에서 6m47을, 세단뛰기에서 13m54를 뛰여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광주체고 윤준호(3년)는 남고부 높이뛰기에서 1m99로 금빛 도약에 성공했다.

광주체고 이소은(1년)도 여고1학년부

100m허들에서 16초91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소은은 이혜인·서여주(이상 3년)·조수빈(2년)과 나선 여고부 1600m 계주에서는 4분07초90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광주체고 장근오는 남고부 400m에서 48초20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장근오는 또 김찬·오희성·기은결(이상 3년)과 호흡을 맞춘 남고부 400m계주(42초37)와 황원우(1년)·김찬·기은결과 출전한 1600m계주(3분18초08)에서도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다.

남고1학년부 110m허들(16초11)의 백의연(광주체고 1년)과 남고1학년부 400m(50초79)의 황원우(광주체고 1년), 여중 1학년부 400m(1분01초97)의 이세령(광주체중 1년)도 각각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광주체중 김아인·이세령·이지운·윤가온은 여중부 1600m계주에서 4분08초23으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광주 빛고을초 홍석민(6년)은 남초부 100m와 200m에서 각각 12초38과 25초07 기록으로 동메달 2개를 따냈다.

최동환 기자

KIA, 카카오톡 신규 이모티콘 출시

KIA 타이거즈는 카카오톡 신규 이모티콘 32종 패키지를 18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출시하는 멈춰있는 이모티콘은 KIA 타이거즈 마스코트인 타이거즈 프렌즈 캐릭터 3종(호걸이, 호연이, 하랑이)을 활용해 일상 생활의 모습을 귀엽고 활동적으로 표현했다.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앱과 웹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한 번 구매하면 기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KIA는 올 하반기에 타이거즈 프



렌즈를 활용한 움직이는 이모티콘도 출시할 예정이다.

민현기 기자